

꿈수 쓸수록 분노 높아진다!



누가 이렇게 사태 파악을 못하나?

오늘로 유성지회의 서울본사 농성 및 전면파업 36일차를 맞는다. 지난주 교섭에 유성기업이 빈손으로 나오면서 조합원들을 허탈하게 만들었지만, 투쟁의지는 오히려 높아졌다. 사측이 꿈수 쓰면서 시간 끌수록 조합원들의 분노는 더 커질 뿐이다. 유성기업은 사태파악을 제대로 해야 한다.

빈손 교섭으로 조합원들을 분노하게 만든 유성기업이 14일에는 서울 본사에서 짐을 빼려다 농성 중인 조합원들에게 막히기도 했다. 유성기업은 서울본사를 사무실을 이사한다며 짐을 싸고 도망가려고 했다. 교섭에는 빈손으로 나오고 농성 중인 본사 사무실은 이사간다는 생각이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사태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있다. 유성기업은 누구의 판단이 상황을 이렇게 악화시키고 있는지 잘 판단해야 한다.

전면파업은 계속된다! 전국적 연대는 더 확대된다!

유성기업의 무성의한 교섭, 본사 이사 시도를 보면서 조합원들의 분노는 더 커졌다. 파업이 한달을 넘기면 조합원들도 지칠만 한데, 회사의 꿈수가 분노를 키워서 투쟁의지를 높여주고 있다. 전면파업 6주차를 맞는 이번주도 흔들림없이 투쟁을 이어간다. 지난주 유성지회는 노동부 천안지청, 대검찰청, 청와대를 향해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노동부 천안지청장은 믿어달라고 했지만, 지금껏 노동청이 믿을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 지회는 “믿어달라는 말 말고 행동을 보여라”고 항의했다. 대검찰청에는 “검찰은 유성기업 경영진의 증거 인멸, 임금삭감,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히고 항의 서한 전달했다. 그리고 청와대까지 오체투지를 하며 노조파괴 공범이자 직무유기했던 정부의 대처를 촉구했다. 유성기업 노조파괴 범죄의 숨은 진짜 주범은 바로 현대차다. 현대차는 유성지회가 현대차 본사 앞에서 집회하는 것이 두려워 알박기 집회신고를 내고 유성지회의 집회를 방해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알박기 집회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회는 “현대차는 알박기 집회, 노조파괴 모두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차 처벌을 촉구했다.

지회의 이런 가열찬 투쟁에 연대가 계속해서 이어졌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의 16개 지역본부장들이 서울 노동청 앞에 모여 유성투쟁 승리를 다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제 유성투쟁은 지역의 연대를 넘어 민주노총 차원의 전국적인 투쟁이 됐다.

노조파괴 없는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

유성지회 조합원들은 간절히 소망한다. “우리는 노조파괴 없는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 유성지회 조합원들의 이 소박한 요구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싸우자. 지부는 김정태 지부장이 유성기업 서울본사 농성장을 사수하고 있고, 전체 지회들이 매주 수요일 18시 유성기업 서울본사 앞 촛불집회에 함께 한다. 지부는 유성투쟁을 승리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다. 전체 지회들이 지금까지 유성투쟁에 보내준 지지와 연대가 이번에는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